

전주매일

2017년 4월 4일 화요일 (음 3월 8일) 제178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원 2길 6번지

‘장미대선’ 대진표 윤곽, 5자구도 형성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확정’

국민의당 안철수 ‘유력’

5월9일 ‘장미 대선’의 대진표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범보수 진영은 이미 지난주 대선 후보를 확정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31일 전당대회에서 홍준표 경남지사를 대선 후보로 선출했으며, 바른정당은 이보다 사흘 앞선 같은 달 28일 원내교섭단체 가운데서 가장 먼저 유승민 후보를 대표주자로 뽑았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수도권, 강원, 제주 경선을 끝으로 문재인 전 대표가 본선행 티켓을 확보했다.

앞서 잇따라 열린 호남, 충청, 영남권, 수도권, 강원, 제주 경선에서 문 전 대표는 60.4%를 확보해 결선투표 없이 장미대선에 승선했다.

국민의당도 4일 대전, 충남, 충북, 세종 경선을 마지막으로 후보를 확정한다. 안철수 전 대표가 광주, 전남, 제주, 전북,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강원, 경기 등 전반기 5연승을 이어나가며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다.

누적 득표를 기준으로 안 전 대표는 68.23%,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22.16%, 박주선 국회의장은 9.62%를 기록하고 있다.

국민의당 역시 대전, 충남, 충북, 세종 경선에서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안 전 대표의 승리가 확실시된다.

안 전 대표가 4일 누적 득표를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를 뒤인 6일 1, 2위 주자를 대상으로 한 결선투표에서 후보를 확정한다.

이번 대선은 일단 후보로 확정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이번 주 본선행 티켓을 거머쥔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등 5자 구도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막판 대선판을 뒤흔들 변수로는 ‘문재인 대선론’에 맞선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간의 비분(비문재인) 또는 반분(반문재인), 중도보수 후보



민주당 문재인 후보(확정)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확정)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확정)



정의당 심상정 후보(확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유력)

▶ 대선판 뒤흔들 변수는?

홍·유·안 단일화 성사 여부
김종인·정운찬 역할도 변수

단일화 성사 여부다.

오는 4일 국민의당 후보로 안철수 전 대표가 선출되면 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간에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치열한 퍼즐게임이 수면 위아래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 당의 정체성이 다르고 후보 단일화를 위한 전제조건 등이 까다로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유승민 후보는 한국당에 대해서는 당내 친박(친박근혜) 핵심인사들에 대한 인적청산을,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등 안보문제에 대한 분명한 태도 변화를 단일화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홍준표 후보는 유 후보의 요구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구속으로 이미 당내 친박은 없어졌으면서 유 후보에게 사실상 ‘백기투항’을 요구하고 있다.

홍 후보는 국민의당에 대해서도 후보 단일화시 자신이 안 전 대표에게 밀리는 여론조사가 아닌 정치협상을 주장하면서도 “연대를 하자고 하면 우리당에서 그것을 용서하겠느냐”며 거리를 유지했다.

각 당의 본선행 주자가 확정된 이후 각 후보의 지지를 추יד도 후보단일화 성사 여부는 물론, 이 과정에서 누가 주도권을 행사할지를 좌우하는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구속이 향후 보수층 표심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또 제3세대 빅텐트를 의미하는 최근 통합연대를 주장하고 있는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와 정운찬 전 총리의 역할 등도 막판 변수 중 하나로 꼽힌다. /안재용 기자

문재인, 본선 직행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3일 제19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선출됐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수도권·강원·제주 선출대회에서도 60.4% 득표율로 승리했다.

최종 결과 문 후보가 득표를 57%로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둬 결선투표 없이 본선으로 직행했다.

문 후보는 호남권역 순회경선부터 이날 수도권·강원·제주까지 4연승을 달렸으며 누적득표에서도 과반을 넘어 대선후보로 최종 선출됐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수도권·강원·제주 선출대회에서 22%로 2위를 차지했으며, 안희정 충남지사는 17.3%를 얻는데 그쳐 3위에 지리했다. 최종 고 양시장은 0.3%를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이 시장이 수도권에 본거지를 두고 있고 안 지사가 본선경쟁력을 부각시키면서 결선 가능성도 제 기웠으나 이번은 일어나지 않았다.

문 후보는 이날 조기에 본선행을 확정지으면서 ‘대세론’에도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안재용 기자

도, 재해예방 추진 ‘최우수’

시군별로 무주 ‘우수’
고창군 ‘장려기관’ 선정

전북도는 지난 3월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실시한 ‘2016년도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또한 시군에서는 무주군이 우수, 고창군이 장려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은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3일까지 약 3주간에 걸쳐 실시했으며, 점검대상은 2016년도에 추진한 재해예방사업으로 공통사항(10항목), 재해위험개선지구(7항목), 급경사지(5항목), 재해위험저수지(5항목), 소화전(5항목), 우수저류시설(5항목), 가점(1항목) 등 총 7개 분야 38개 항목에 대해 점검했다.

전북도는 이번 점검에서 2016년 재해예방사업 추진시 조기발주 추진과 재해예방사업장에 대한 수시 현장점검 실시, 급경사지통합시스템 DB관리, 붕괴위험지역 표지판 설치, 소화전 사전 설계검토 추진,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 추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는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으로 오는 5월 방재의 날 행사시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으며, 이번 추진실태 점검결과와 올해 조기발주 및 조기완공 실적을 합산해 지원하는 국비 인센티브 확보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시군 평가에서는 전국 174개 자치단체중 무주군이 ‘우수기관’으로, 고창군이 ‘장려기관’으로 선정돼 도와 시군이 나란히 재해예방사업 추진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무주군은 급경사지 정비시 지장 전주 이철 원인자부담금을 한전과 사전협의해 지중화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한 점, 고창군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시 임시 복통시설을 설치해 농업용수 공급에 적극 협조해 주민불편을 최소화 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북도는 올해에도 재해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1,642억원을 투자해 재해예방사업 117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지구는 실시설계와 토지보상을 신속히 실시하고, 계속지구는 6월말 우기철 전까지 주요 구조물을 완료해 수해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현용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을 통한 문제점 개선 및 우수사례 발굴·전파로 재해예방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태양광 15MW 발전시설
군산에 들어선다

시, 피앤디솔라 등과 협약

군산시가 3일 (주)피앤디솔라(SPC), 한국남동발전(주), 코리아에셋투자증권(주), 스코트리아(주)와 세계 최대 수상 태양광 15MW 규모의 발전시설 투자와 관련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설치되는 수상 태양광은 단순 유수지 가능 외에 활용되지 않는 군산2국가산단지 폐수처리장 인근 유수지 수면을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업은 사업시행자인 피앤디솔라가 유수지 수면을 임차하고 예타 지공기업인 한국남동발전과 공동으로 사업관리 및 수상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군산시는 직접적인 투자 없이 수면 임대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금융주관사인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주관으로 민간자본금 300여원을 투자해 전력생산 15MW 규모의 수상태양광을 전체 유수지 면적 37만2182㎡의 60%인 22만3300㎡ 수면 위에 설치할 계획으로 이는 단일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용량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가 될 예정이다.

/군산=김필곤 기자

우병우, 이번주 검찰 출석 유력

검찰이 이르면 이번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환 조사한다. 우 전 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기관에 출석하는 건 이번이 세 번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 관계자는 3일 “우 전 수석에게 4일쯤 소환 통보할 것 같다”며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러 가지 혐의 내용에 대해 조사를 강도 높게 진행해 왔다”며 “특검에서 수사기록이 넘어온 이후 40명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우 전 수석 관련 참고인 조사는 이날도 진행 중이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61·구속기소)씨 국정 농단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이에 협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뉴스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도전이 있는 축제의 장”

2017 군산 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
Gunsan Saemangeum International Marathon

일시 : 2017. 4. 9(일) 08:00
장소 : 군산월명종합경기장

국제공인대회 : Full, Half, 10km, 5km
International Certified Marathon Race
42.195km, 21.0975km, 10km, 5km

참가신청기간 : 2017. 1. 15 ~ 3. 20(65일간)
마라톤사무국 : 063)465-7731, 02)418-7881

주최 : 대한육상연맹, 군산시 | 주관 : 전라북도육상연맹, 군산시체육회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군산시의회, 군산경찰서, 군산소방서, 군산시육상연맹